

질식재해 발생 사례

- 갈탄난로 피워놓고 취침 중 질식 -

우리 환경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에는 많은 유해·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쳐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사례를 알려드리으로써, 발생가능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1. 재해개요

가. 발생일자: 1999년 12월

나. 소재지: 경기도 양주군

다. 사업장: ㈜○○전업

라. 피재자: 사망2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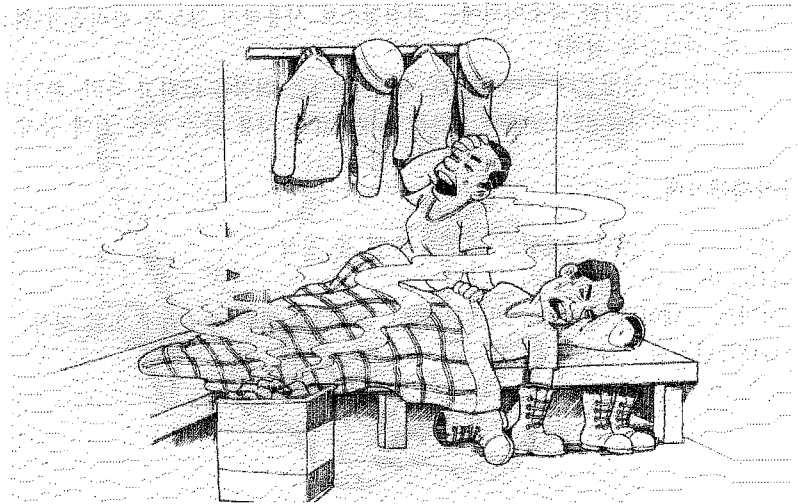
마. 사고유형

휴게실로 사용하던 아파트 지하 핏트층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고 자다 질식 사망

바. 발생개요

1999년 12월 경기도 양주군 소재 (주)○○

건업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재자 2명이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아파트 지하 핏트층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고 자다 질식 사망한 재해임



< 재해상황도 >

2. 재해발생경위

- 피재자 2명은 현장에 출근하여 리프트 운전원 일을 해오다가 작업을 마치고 평소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지하 핏트층에 있는 밀폐된 작은 공간(2.4×2.1×1.5m)에서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담아 불을 피운 후 잠을 자다가 갈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

3. 재해발생원인

-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갈탄사용 취침
 -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장소에서 배기구, 환풍기 등을 이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빈 페인트통에 갈탄을 담아 불을 피워, 갈탄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고 발생지하실 핏트층 숙소 사용
 - 현장내에서 환기설비, 난방설비 등이 없는 지하실 핏트층을 임의로 숙소로 사용하다 갈탄연소시 나오는 유해가스에 질식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간이난로(갈탄)사용금지

지

-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갈탄을 연소시키는 간이난로 사용금지
- 지하실 핏트층 숙소 사용금지
 - 정식으로 인가한 숙소이외에는 취침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철저(현장순찰, 관리감독 철저)
 - 환기설비, 난방설비 등이 완벽한 숙소이외에는 취침을 금하고 특히,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실 핏트층에서 갈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

5. 유사재해사례

- 건설현장 침실에서 목재난로 피운채 수면 중 질식(1999년 1월: 사망1명)
- 아파트 콘테이너 박스에서 가스히터 켜 상태에서 취침중 CO에 의한 질식(2001년 2월: 사망1명)

[자료제공: 한국산업안전공단]



에코테스트
(신속·간편·정확)

현장수질키트
(비가열식)

구입문의
(02) 852-2291